

儒學과 마르크시즘**

뷰로프 (V.G.Burov)*

儒學과 마르크시즘이라는 두 개념을 평행선상에 놓고 비교할 경우 대다수 사람들은 이를 생소하게 여기거나 억지추향식의 무리한 시도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이들이 갖는 의아심은 그렇게도 이질적이고 시대적으로도 크게 격리된 이들 두 사상적 경향사이에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아 이러한 접근방식은 올바른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접근의 실마리는 유학과 마르크시즘이라는 이들 두 사상의 전통적 해석속에서 모색되어야만 한다. 우선 유학에 관해 고찰해 보기로 하자. 유학과는 추구하는 개념을 달리하는 과학의 영역에는 유학은 한정된 특수한 사회적 의미 역시 특정한 시대적 상황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 사상적 학파가 있다. 이 학파의 유학비판은 세가지 점으로 집약회 수 있다. 첫째는 유학은 중국 내지는 기껏해야 극동아시아지역의 문화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두번째로 강조되는 점은 유학은 사회적 제반조건 및 오랜 기간 존속되어 온 삶의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세번째는 결론적 주장이기도 한데, 유학은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일 정도로 시대에 뒤진 케케묵은 사상이며, 나아가 이 기계문명의 시대에는 설 자리조차 찾아볼 수 없는 사상이라는 점이다.

마르크시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

* 소련과학원 교수.

** 원제: Confucianism and Marxism

퇴계학연구소, 『퇴계학보』 제63·64호(1989) 게재논문

다. 즉 마르크시즘은 애당초 자신의 사상적 편향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공공연히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에 전혀 상이한 사회적 환경속에서 탄생한 사상과는 털끝만큼의 관련성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말해 여기서는 유학과 마르크시즘간에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상적 일치점을 찾아보려는 시도는 그 최소한의 가능성조차 철저히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부연해 두어야 할 점은 양측의 일부 결벽증적인 사상적 순수파들에게는 대립하는 이들 두 철학적 사조의 양립성이라는 문제는 자칫 생각만 해도 불경스러운 처사로 간주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들 두 사상의 진면목을 살펴보기로 하자. 유학은 씨족 집단으로 구성된 계급사회를 속성으로 하는 고대국가에서 발생한 사상으로, 당시는 과학 및 기술수준이 매우 낮고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가 부분적인 상업활동을 수반하는 농경생활을 근간으로 형성된 시기였다. 반면에 마르크시즘은 현대적 생산방식에 입입어 새로운 계급과 사회적 계층이 형성되던 산업혁명기에 발생한 사상이었다. 유학의 초창기에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었던 사상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시즘과 유학이 각각 대변하는 사회적 계층간에 사회심리학적 속성의 상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지역적, 민족적 문제의 측면 역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알다시피 유학과 마르크시즘은 각각 동양과 서양이라는 지역적 차이를 두고 발생한 사상이었다. 따라서 유학은 어떤 형태로든 중국농민들이 지닌 민족적 심리를 어느 정도 표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유학과 마르크시즘은 추구하는 개념이나 사회적 기반 및 고정된 사상적 핵심등이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유학과 마르크시즘을 갈라놓는 명백하고도 엄청난 차이점들이 제아무리 제시된다 하더라도, 이는 결코 이들 간에 존재하는 공통점이나 이들을 서로 엮어주고 있는 보이지 않는 끈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두 사상간에 모종의 정신적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주장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학과 마르크시즘은 각각 나름의 사상체계를 통해 서로 비슷한 순전히 인간적인 문제들-장구한 세월을 거쳐 아직까지도 사회적 소속이나 당파·직업 및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세계 도처의 수많은 사람들의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문제들 - 을 다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실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의 숙명적 과업이자 역사적 책임인 동시에 사회속에서의 자신의 위상 인식작업이며, 나아가 인간의 사회적 이상과 개인의 도덕적 기준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것이다. 이제 유학의 開祖인 孔子와 孟子의 사상을 관련저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孔孟은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邪惡한 마음을 극복하는 克己와 인간의 선한 성품인 천성의 함양 등에 주력한 인물이었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총명하고 교양있고 개인 사람들을 가르쳐 여러 지역사회와 국가간에 善隣관계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유학 -특히 초기단계의 유학-은 흔히 사회적 계급제도와 사회적 불평등을 합리화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식의 계급비판은 유교윤리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제약이 되어 온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통속적 사회학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익은 계급비판론을 펴는 변증론자들은 -그것이 고의적이건 아니건 간에 어쨌든- 유학이 탄생했던 고대에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상이 대두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그같은 사상이 출현할 수 있는 개연성은 심지어 현대에 있어서도 기대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물며 고대에 있어서라? 유학은 출범당시 어느정도 소수 지식인층에 국한된 사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학은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후 중국사상사에 있어 장족의 진보를 이룩했다. 설사 유학이 실제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문헌에 흔히 언급되는 바와 같이 착취세력으로서의 사회의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했다손 치더라도, 이후에 진보적 발전을 이룩한 것만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마르크시즘의 第二人者인 프레데릭 엥겔

스의 말을 인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노예제도 그 자체는 地主 계급과 産業간의 分業형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결과적으로 고대국가 즉 희랍문화의 번영의 토대를 구축했다. 노예제도가 없었다면 희랍이라는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희랍의 예술이나 과학조차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근원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사회적 종속관계의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희랍문화는 유럽문화의 긍지이며 마찬가지로 유학은 중국문화의 긍지인 것이다.

나는 유학을 쇠덩어리나 견고한 바위와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유학은 초창기 이래로 실로 복잡다단한 여정을 거쳐왔다. 역사적으로 유학은 영광의 시대를 향유하기도 했으나 또한 자신이 보수세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고난의 시대도 목도했다. 유학에 대한 나 개인의 주된 관심사는 오늘날까지도 그 불멸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는 인본주의적 사상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도덕성, 본분에 걸맞는 함양, 인척과 벗들에 대한 사랑, 父兄과 長老의 권위에 대한 존경심 및 전통의 계승 등을 추구하는 가치관은 각별히 주목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유학에서 흔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전통숭배사상이다. 유학은 늘상 시대에 뒤떨어진 과거의 행동 및 윤리규범을 주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유학은 종종 보수적이라던가 심지어는 반동적 사상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유학이 그토록 보수적 사상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유학은 도대체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살아남아 올 수 있었겠는가라는 질문인 것이다. 부연하자면 유학은 어떻게 그토록 광대한 지역에 널리 확산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흔히 인용되는 상투적 표현 그대로 유학이 진정 “봉건집단에 충성스럽게 봉사”했기 때문일까? 내가 보기에 이런 식의 답변은 진실의 절반 밖에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 생각된다. 유학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시종일관 사회지향적 사상을 펼쳐 왔다. 그

러나 유학은 이와 동시에 그 자체 속에 친절, 자애, 충성 등과 같은 순전히 인간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 깊숙히 파고 들 수 있었던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전통이란 문제에 대해 몇 마디 첨언해 보기로 하자. 지난 수세기의 역사를 읽노라면 전통에 반기를 들고 일어섰던 살회적 기록들을 무수히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기실 이러한 반기들은 대부분의 경우 존재의 근본원칙 다시 말해 인간들을 지역사회나 유기체적 통합사회조직으로 결속시키고 나아가 인간들의 관계를 영원한 관계성으로 확정지어 주는 영구불변의 진리를 망각시키려는 시도를 교묘히 은폐하고 있는 것이었다. 내가 여기서 존재의 근본원칙 내지는 영구불변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정의, 의무감, 상부상조 및 상호책임 등과 같은 인간사회의 규범 및 규칙을 이르는 것이다.

전통과 관련해 역시 명심해 두어야 할 점은 전통은 인간사회를 활기 있고 건강하게 해주는 측면도 있다는 사실이다. 건전한 전통의 파괴는 인간존재의 근본과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 주는 정신적 유대감의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전통을 상실한 민족은 과거사의 망각과 더불어 도덕적 타락 및 민족문화의 쇠퇴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주로 유학 덕분에 민족적 생명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나 그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사회적 안정의 토대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때, 수많은 중국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유학이라는 가르침은 실로 비할 데 없는 그 독특성이 더욱 주목되는 사상인 것이다. 따라서 유학의 경우는 현재 달리 특별한 사상적 부흥운동은 거의 필요가 없는 상태이고, 단지 요구되는 것은 편견을 떠난 학문적 자세의 견지와 깊이있고 전문적인 연구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는 마르크시즘의 문제로 옮겨가 보기로 하자. 많은 과학자들은 아직도 마르크시즘은 자신을 과거의 사상적 전통과 철저히 분리

시켜 놓고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시각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몇 안되는 특정 마르크스주의자들 자신 때문이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과거의 전통에 대한 자신들의 부정적 태도를 공공연히 표방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과거의 정신적 문화와는 여하한 관계도 갖기를 원치 않는다는 발언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소련의 과학계내에서도 이미 표출된 바 있다. 마르크시즘은 과거의 문화와 과거와 동시대적인 것은 그 무엇이든 이를 완전히 부정해 버림으로써 황폐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융통성을 상실한 견고한 도그마로 전락해 버리는 신세가 많았다.

우리는 마르크시즘 역시 전시대에 존재했던 이론적 사상의 발전적 부산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은 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을 돌이켜 보건대 이러한 상황인식은 마르크시즘을 현대속에서 풍요롭게 가꾸기위한 목적이 방법론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 현재 소련의 과학계는 가치의 재평가작업을 통해 마르크시즘과 과거 및 현재의 여타사상들간의 관계에 대해 그들이 종전에 갖고 있던 기성개념들을 타파해 버리고 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여하한 이론적 명제도 그 진실성 여부는 그것이 이런 저런 고전적 주의주장에 부합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명제가 인간존재의 진정한 목적에 어느 정도 진실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놓고 볼 때 마르크시즘은 자신만이 현대세계의 도덕적, 사회적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사회사상의 세계적 조류를 형성하고 있는 마르크시즘은 인간이 정신적 해방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모든 개인이 각자의 창조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의 모색을 문제로 설정해 놓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도출해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간주하고 있는것 같다.

마르크시즘은 사회사상분야가 현대에 이룩한 세계적 업적과 더불어 과학기술혁명의 소산물을 연구 및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방적 이론체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사고는 다원성을 그 본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다양한 사상체계가 수없이 출현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 것이다. 보편성을 자처하는 사상체계가 있다면 그러한 사상은 필히 그 이론적 전개과정에서 개인 및 사회의 관심사의 다양성과 인간 개개인의 이질성을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이다.

마르크시즘은 인간에게 합당한 물질적, 정신적 기준을 옹호하며 떨치고 일어나 개인이 갖춘 모든 지적능력을 무한대로 개발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출현한 인본주의적 사상체계이다. 마르크시즘의 창시자들은 특히나 인본주의적 이상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었으나, 불행히도 이러한 이상은 훗날 방치된채 거의 무시되어 버리고 말았다.

마르크시즘과 유학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을 서로 긴밀히 연결시켜 주고 있는 끈은 다름 아닌 바로 인본주의적 이상인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 순전히 인간적인 가치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중요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름의 방식대로 개인의 도덕적 향상이라는 개념을 증진시키거나, 지식과 과학자와 노동자의 예찬을 촉구하는 사상적 가르침에 대한 관심 역시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시대에 쓰여진 여러나라의 유학관계 저술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완전한 개인과 도덕적 행위에 관해 피력된 수많은 탁견들을 접하게 된다. 이렇게 훌륭한 사상을 남기고 간 유학자들 중에서도 우리는 특히나 한국유학사의 대표적 거목인 이퇴계선생을 지적치 않을 수가 없다. 유학연구가 마르크시즘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고 보는 우리의 견해는 바로 이런 점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김 태 건 譯)